

2017 년 11 월 12 일 “찾아오신 예수님(45) 고난의 한복판에 서신 하나님”(요 19:1-16)

<도입>

은혜의 경험을 하면 이전에 가졌던 신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인식을 넘어서시는 크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고통받고 죽으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하나님”은 은혜 체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순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것과 연관하여 본문 수난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정론(신을 정당화 하는 이론)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악과 고통이 범람하는데 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면서 악/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을 보시고만 있습니까?

엘리 위젤은 자서전적 소설, ‘밤’에서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 속에서 본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15 살 때(1944) 히틀러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여러 수용소로 끌고 가 살상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수용소 ‘분나’로 끌려갔을 때, 어른 두 명과 어린이 한 명을 교수대에서 처형하는 것을 강제로 보게 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젤 뒤에서 한 유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때 위젤은 내면에 울리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어디에 계시냐구? 바로 여기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교수대에 목매어 있다”

이 잔인한 실화는 신정론의 중요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당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처참하게 죽어 매달려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셔야 하는데 도리어 악에 목매어 죽으셨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건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피상적으로 본 결과로 추측성 사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계와 인간 사이에서 큰 고통을 겪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크시고, 악을 혐오하시며,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말씀도 보지만 또한 아파하시고, 고통 당하신다는 사실은 특히 선지서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에게 개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탁월하고 흠이 없는 아빠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슬퍼하고 고통받는다면 그를 향한 사랑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빠는 슬퍼하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고통 받으시는 이유는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해 달라 하지만, 주님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고통을 함께 당하며 아파함으로써 하나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2] 예수님의 고난

쉽게 지날 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 1 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 2 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 흐르는 피
- 3 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 16 절.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 30 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본문에 나타난 대조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빌라도는 냉혹한 권력자이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보았고 유대인들 주장에 거듭 대항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편견과 오해와 적대감에 사로잡혀 예수를 죽여야 함이 신념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거짓 신념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 빌라도와 종교적 편견과 적대감으로 충성한 유대인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과 거짓 신념이 결합하면 진리를 말살합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거짓 신념과 적대감이 판을 치는 곳에서도 주님의 구원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세상을 평정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벌여 놓고도 상관하지 않는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악에 고통 당하는 당신의 약한 자녀들과 함께 연대하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편견, 신념조차 가질 수 없는 약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과 하나되기 위하여 고난의 한복판을 택하십니다. 그곳은 세상도 싫어하고 종교도 거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 십자가로 나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사랑함으로 자신을 열어놓은 예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히 13:12,13 "...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고통과 죽음으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육체는 우리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 성찬의 이 자리는 세상 권력이 버린 곳이고, 종교적 거짓 신념과 적대감, 미움, 살의가 자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영적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과 피 안에서 당신과 하나되길 원한다는 고백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는 성찬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내 생각이 바뀐 것이 있든지, 보완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
2. 이 세상의 권력(힘)과 종교적 행위와 추구는 고난과 죽음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줄여서 함축적인 나의 표현으로 말씀해 봅시다.
3. 위에서 함께 나눔 히 13:12,13 의 말씀을 다시 읽고 느낀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영문 밖은 어디일까요(13 절)?